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의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 총 선(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가정복지학과 교수)

조 은 수(구미1대학 아동복지학과 외래교수)

배 나 래(호서대학교 학교기업 연구교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장과정에서 지각하는 원가족의 건강성이 그들의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기술통계, t-test, 분산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관 척도는 결혼조건(2문항), 결혼제도 및 정서적 안정(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50$ 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 척도는 가족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1$ 로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가족건강성은 ICPS 가족기능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가족의 응집성(7문항)과 적응성(6 문항), 그리고 의사소통(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7$ 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종교의 경우는 '무교'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가장 많았다. 경제 상태는 '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가장 많았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결혼관은 보수적이었고, 특히 제도 및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가치관은 부모-자녀관계 가치관이 4.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家)의식(2.64점), 부부관계(2.4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가치관 중 가(家)의식은 성별, 연령이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가치관은 가(家)의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대학생의 원가족건강성은 학년, 연령, 그리고 결혼관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회귀함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 계수 R^2 값은 0.106로 10.6%를 설명해 주었다. 회귀함수에 포함된 변수들 중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종교만이 결혼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가족건강성 변수 중에서는 가족응집성이 결혼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제언을 한다면,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경북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부분 20세~25세에 한정되어 청년층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의 성격 및 자아는 건강가족 안에서 형성되므로,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고, 건전한 자아상을 심어 주기 위하여서는 결혼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준비된 결혼을 맞이하고, 원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